

6. 흐리고 찬바람 세계 불던 세고비아(11.7)

제목 1: 차마르틴역에서 세고비아 행 고속철을 타다

마드리드에는 우리 나라의 서울역 격인 아토차(Atocha) 역과 용산역 격인 차마르틴(Chamartin) 역이 있다. 톨레도는 아토차 역에서 출발하지만 세고비아는 차마르틴역에서 출발한다.

마드리드에 거주했을 때에도 특별히 차마르틴역에 가본적이 없다. 세고비아 가는데 기차 탈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드리드에서 세고비아까지 승용차로 1 시간이면 도착한다. 또 가는 길목에 네바세르라다(Nevacerrada)라가 있다. 늦 봄까지 스키가 가능한 지대가 높은 곳이다. 그곳 카페에서 주변 풍경을 보며 잠시 쉬어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주말이면 쉽게 갔던 세고비아를 여행객이 되다 보니 아침부터 부산하다. 톨레도 갈 때는 아토차 역이 호텔에서 걸어 10분 거리여서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차마르틴역은 택시로 30분 정도 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멀게 생각되었고 기차 출발 시간도 이르다.

출근 시간을 피해 조금 일찍 나섰다. 아침식사는 역에 있는 카페에서 해결했다.

고속철도인 아베(AVE)를 타니 30분 만에 세고비아 역에 도착한다.



제목 2: 찬바람 부는 세고비아 역

세고비아역은 시내와 많이 떨어진 평원에 외따로 있다. 기차역 주변이 평원이다. 주변에 아무 것도 없다. 로우리 플레넷 관광 가이드 북에 따르면 기차역에서 세고비아 입구 로마 대수로 까지 거리가 2.5 킬로 정도 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2.5 킬로를 걸어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도착하니 아무도 없는 찬 바람 부는 평원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다. 마드리드 보다 훨씬 춥고 바람이 세다.

그런데 관광버스로 알았던 역 앞 버스를 가까이 가서 보니 시내버스 아닌가? 세고비아시내와 기차역을 열차 도착 시각에 맞춰 운행하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로마 대수로 주변 정류장에 내렸다.



세고비아는 과거 카스티야 왕국의 중심지역이다. 지대가 높은 평원 지역이다. 그래서인지 마드리드 보다 기온이 섭득할 정도로 차갑고 바람이 세차다. 더구나 잔뜩 흐린 날씨라 체감 온도가 더 낮다. 춥다.

역사를 나오면서 아내가 갑자기 소 똥 냄새가 난다고 한다. 나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아내는 특히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다. 전생이 개과 인가 할 정도로 항상 정확했다. 주위는 온통 녹색 초지이고 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오후 다시 기차역에 오니 소들이 초지에 넓게 흩어져 풀을 뜯고 있었다. 역시 정확하다.

제목 3: 세고비아 관광명소 들

세고비아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관광 명소가 많다. 1세기 로마 통치 시절에 건설된 대수로, 월트 디즈니에게 잠자는 숲 속 미녀의 성 영감을 주었다는 알카사르 성, 세고비아 대성당, 플라자 마을 광장 등이 있다. 또 주변 풍경도

아름답다. 다만 톨레도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로마 대수도교는 높기도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수로 유적의 길이가 무려 894 미터이다. 20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수로를 건설할 생각을 하고 실제 건설해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대단하다.



잔뜩 흐리고 찬 바람이 불어서 수로 주변을 걸어서 오르내리는 길이 산만하다. 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외치는 소리와 그들의 무질서한 움직임으로 더욱 어수선하다.

세고비아 길은 틀레도 수준의 미로는 아니다. 그러나 수로에서 세고비아 대성당이 있는 광장으로 가는 길은 오르내리는 골목길이다. 대충 방향을 설정해 걷다 보면 문득 광장과 대성당을 만나게 된다.

여러 번 와본 곳이다. 성당 안은 들어가지 않았다. 여행 출발 전 새로 마련한 아이폰 11에 장착된 울트라 와이드 앵글을 사용해서 성당 전체 사진을 찍으려 하니 중국 관광객들이 방해한다. 오늘 세고비아는 가는 곳마다 중국 단체 관광객으로 어지럽다.

종종 보이는 한국 관광객들은 조용하고 걸음걸이도 얇전하다.



아내는 대성당에 관심 없다. 광장에 임시로 설치된 과일과 채소 시장을 기웃거리며 무엇을 사볼까 연구 중이다. 사진 그만 찍고 와서 돈 내라고 나를 부른다. 부르는 소리는 크지 않아도 아내 목소리는 잘도 들린다.

아스파라거스 두 묶음, 작은 당근 7개, 감 2개 사서 백 팩에 넣었다. 여행하다 보면 채소 섭취가 부족하니 호텔에 들어가 삶아 먹어야겠다고 한다. 현명한 생각이다. 그리고 조리기구도 다 있는 아파트 호텔이니.



성당에서 오른 쪽으로 골목길을 한참 내려 가다 보면 그 끝에 알카사르 성이 있다. 또 중국 관광객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리 저리 피해가며 몇 장 찍기는 했다.



오늘 성 내부는 개방되지 않았다. 내부에서 정부 행사를 하는지 군인들이 짝 깔려 경비를 삼엄하게 하며 성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내와 나는 개의치 않았지만 내부 사진을 찍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알카사르 성은 높은 곳에 서있다. 그 아래 펼쳐진 세고비아 평원이 아스라이 멀게 보이며 아름답다. 날씨가 좋았으면 더 보기가 나았겠지만 흐린 날씨도 늦가을의 애잔한 정취가 배어있다. 내 머리 속에 남아있었고 보고 싶었던 평원 풍경이다.



제목 4: 골목길의 작은 카페

알카사르 성에서 다시 돌아오는 골목길의 바람은 차고 매서웠다. 화장실도 갈 겸 주변을 둘러보는데 낡은 목조 문 유리창 너머로 동네 할아버지들이 모여 커피 마시는 것이 보인다.

눈에 잘 띄지도 않은 동네 작은 카페다.

화장실도 사용할 겸 또 찬 바람으로 언 얼굴도 녹일 겸 들어갔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출하고 좁지 않으며 훈훈하다. 따뜻한 커피에 초리조를 얹은 타파스를 곁들여 먹었다. 30여 분 쉬다가 나왔다.



제목 5: 세고비아 역에서 본 평원 풍경

대수로 주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엉성한 점심을 먹고 예정보다 두 시간 더 빠르게 세고비아역으로 왔다. 기차역 가는 시내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니 시간표에 버스가 30분 뒤에 오는 것으로 되어있다.

찬 바람 부는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이 곳 사람들도 추운 정류장에서 찬 바람을 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아주 느긋하게.

시간이 되니 버스는 정확하게 도착했다. 다시 세고비아역에 내리니 그동안 날씨가 좋아졌다. 햇살이 보인다. 햇살 속에서 주변 평원은 더 광활하게 보인다. 찬 바람을 맞아가며 풍경 몇 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시내 버스는 현금을 내고 탄다. 기차역까지 1유로 83센트란다.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끝 자리가 83센트인지. 5 유로 지폐를 냈더니 크기가 다른 동전 별로 잘 정리해 놓은 동전 보관함을 열어 급한 것 없이 거스름 돈을 센트 까지 잘 챙겨 준다. 참 급할 것 없는 스페인 사람 답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버스는 매우 쾌적하다.

세고비아를 여러 번 와 봤으면서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 몇 가지를 다시 느끼며 세고비아를 떠난다. 마드리드 가는 이른 기차가 있다. 표를 바꿔서 한 시간 조금 이르게 마드리드로 출발했다.



제목 6: 모다 쇼핑에서 구두 사기

차마르틴 역에서 호텔로 돌아오는 길 중간에 아내가 가고자 했던 모다 쇼핑이 있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마드리드에 두 시간 일찍 도착했기때문에 들르기로 했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다수의 상점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주인장 얼굴들도 보인다. 물론 더 나이 들어 머리털이 빠지고 비만하다.

지하 1층 모퉁이에 자리잡고 있는 차르코(Charco)에 갔다. 얀코나 로투세 같은 스페인 유명 구두를 팔기도 하지만 차르코 라고 불리는 자기 상점 브랜드로 구두를 만든다. 가격과 디자인 그리고 품질이 좋아 가성비가 높다.

아내는 그것을 알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겨울용 단화 한 켤레를 샀다. 그러려고 구두를 가져오지 않고 운동화만 신고 온 것이다. 참 사려가 깊고 기획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74 유로를 지불했다. 우리 나라 신발 가격과 비교해 생각해보면 저렴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구두 가격은 왜 그렇게 비쌀까?

제목 7: 툼레도와 세고비아 단상

툼레도와 세고비아는 내게 그 곳의 가을 골목과 가을 평원의 맑은 쓸쓸함을 선물로 주었다. 물리적으로 보는 것은 사진으로 남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내 기억의 창고로 들어간다. 그리고 마음이 번거롭고 어지러울 때 문득 꺼내서 보는 기억의 자산이 된다. 툼레도의 골목 풍경과 세고비아는 평원 풍경. 그 것들이 위안을 준다.

